

제3과 연습문제 풀이

D03.01 다음 문장에 찐디를 적용하고 해석하시오.

D03.01(01) punaḥ-iha-nrpān-namataḥ-vadataḥ-ca.

punar iha nrpān namato vadataś ca.

여기서 다시 두 사람은 왕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말한다.

D03.01(02) vaṇijakaḥ-tatra-asti

vaṇijakas tatrāsti.

상인은 거기에 있다.

D03.01(03) ḡrhakāraḥ-ḡrham-karoti

ḡrhakāraḥ ḡrham karoti.

목수가 집을 만든다.

D03.01(04) devam-jayāmaḥ-iti-nrpāḥ-bhāṣante

devaṃ jayāma iti nrpā bhāṣante.

우리는 신을 이긴다고 왕들이 말한다.

D03.01(05) tatkālam-vānarāḥ-aśvāḥ-iva-devālayam-āgacchanti

tatkālam vānarāśvā iva devālayam āgacchanti.

그 때에 원숭이들은 말들처럼 사원으로 온다.

D03.01(06) sevakāḥ-apaṇḍitāḥ. punaḥ-punaḥ-tu-satyam-vadanti

sevakā apaṇḍitāḥ. punaḥ punas tu satyaṃ vadanti.

하인들은 배운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듭 거듭 진리를 말한다.

D03.01(07) he-asatyam-vadasi-iti-paṇḍitāḥ-brāhmaṇam-bhāṣante

he! (♣02.22) asatyam vadasīti paṇḍitā brāhmaṇam bhāṣante.

“어이, 그대는 거짓을 말한다!”라고 현자들이 사제에게 말한다.

D03.01(08) ḡrhakāraḥ-punaḥ-devālayam-karoti-ḡrham-ca-gacchati

ḡrhakāraḥ punar devālayam karoti ḡrham ca gacchati.

목수는 다시 신전을 짓고 그리고 집에 간다.

D03.01(09) aho-na-satyam-bhāṣethe-iti-śiṣyau-vaṇijakau-prati-eva-manyete-tatkālam

aho! (♣02.22) na satyaṃ bhāṣethe (♣02.20) iti śiṣyau vaṇijakau praty eva

manyete(♣02.20) tatkālam.

“오호! 당신들 두 사람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군!”하고 두 학생은 그 때 바로 두 상인에 대해서 생각한다.

D03.01(10) atha-pañḍitau-aśvam-diśataḥ-iti-manyete-vīrau. pañḍitau-tu-tatra-candram-evana-aśvam-diśataḥ.

atha pañḍitāv aśvaṃ diśata iti manyete vīrau. pañḍitau tu tatra candram eva nāśvaṃ diśataḥ.

“이제는 두 현자가 말을 가리킨다.”라고 두 영웅은 생각한다. 하지만 두 현자는 그 곳에서 말이 아니라 바로 달을 가리킨다.

D03.01(11) sūryaḥ-iva-devaḥ-atra-janān-ṛcchati-kutra-nṛpaḥ-candram-iva-vīram-jayati-iti. sūrya iva devo 'tra janān ṛcchati kutra nṛpaś candram iva vīraṃ (/vīrañ) jayatīti.

태양과 같은 신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왕이 달과 같은 용사를 무찔렀는가?”라고.

D03.01(12) janāḥ-saṃvatsaram-brāhmaṇau-eva-satyam-prati-ṛcchanti

janāḥ (/janās) saṃvatsaraṃ brāhmaṇāv eva satyaṃ prati ṛcchanti.

사람들이 일년 동안 바로 그 두 사제에게 진리에 대해 묻는다.

D03.01(13) pañḍitaḥ-apañḍitam-dviṣṭe-apañḍitaḥ-ca-pañḍitam-dviṣṭe

pañḍito 'pañḍitaṃ dviṣṭe 'pañḍitaś ca pañḍitaṃ dviṣṭe.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싫어하고 못 배운 자는 배운 자를 싫어한다.

D03.01(14) janāḥ-tatra-pañḍitaṃ-dharmam-prati-ṛcchanti-punar-iha-āgacchanti-ca-dharmam-ṛcchante

janās tatra pañḍitaṃ dharmam prati ṛcchanti punar ihāgacchanti ca dharmam ṛcchante.

사람들이 거기에서 현자에게 다르마에 대해 묻고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오고 다르마를 요구한다. (여기에서는 문맥에 맞추어 P.의 형태와 Ā.의 형태를 의미상 구분하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D03.01(15) ācāryaḥ-ca-śiṣyaḥ-ca-sevakaḥ-ca-aśvaḥ-ca-mārgam-punar-gacchanti.

ācāryaś ca śiṣyaś ca sevakaś cāśvaś ca mārgaṃ punar gacchanti.

스승과 학생과 하인과 말이 다시 길을 향해 갔다.

D03.01(16) aśvau-iha-skandataḥ-carataḥ-ca. nṛpaḥ-aśvau-atra-dviṣṭe-daṇḍam-ca-kṣipati.

aśvāv iha skandataś carataś ca. nṛpo 'śvāv atra dviṣṭe daṇḍaṃ ca kṣipati.

여기에서 두 말이 뛰어오르고 돌아다닌다. 왕은 그 경우 두 말을 싫어하고

(√dviṣ 2P.Ā. [dveṣti, dviṣte]) 막대기를 던진다.

D03.01(17) śiṣyam-ācāryaḥ-tatkālam-vadati. nṛpaṃ-namasi-satyam-ca-punar-vadasi-iti.
śiṣyam ācāryas tatkālam vadati. nṛpaṃ namasi satyam ca punar vadasīti.
그 때 스승이 학생에게 말한다. “너는 왕에게 인사하고 다시 진실을 말한다.”라고

D03.01(18) atha-vīraḥ-tu-ācāryaḥ-nṛpaḥ-aśiṣyaḥ-nalaḥ-iha-punar-punar-namati.
atha vīras tv ācāryo nṛpo 'śiṣyo nala iha punaḥ punar namati.
한편 영웅이면서 스승이고 왕이고 학생이 아닌 (즉, 더 배울 것이 없는) 날라는 여기에서 다시 또 다시 인사했다 (자신을 굽혔다).

D03.01(19) śiṣyaḥ-saṃvatsaram-na-punaḥ-kṛīḍati-iti-bhāṣete-atra-brāhmaṇau-tatkālam.
śiṣyaḥ saṃvatsaram na punaḥ kṛīḍatīti bhāṣete 'tra brāhmaṇau tatkālam.
“학생은 일 년 동안 다시 놀지 않는다.”라고 두 사제가 그 곳에서 그 때 선언한다.

D03.01(20) atha-devāḥ-sūryam-icchanti-na-candram-iti-āgacchanti-iha.
atha devāḥ sūryam icchanti na candram ity āgacchantīha.
그런데 신들은 태양을 원하고 달을 원하지 않아서 이곳(이 세상)으로 온다.

D03.01(21) janāḥ-devālayam-prati-gacchanti-devam-prati-ca-namanti.
janā devālayam prati gacchanti devam prati ca namanti.
사람들은 신전을 향해 가고 그리고 신을 향해서 경배한다.

D03.01(22) kutra-nṛpaḥ-dharmam-karoti-iti-ṛcchete-iha-sevakau-apaṇḍitau.
kutra nṛpo dharmam karotīti ṛcchete iha sevakāv apaṇḍitau.
“어디에서 왕이 정의를 행하는가?”라고 두 못 배운 하인들이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D03.01(23) ācāryaḥ-nṛpāḥ-śiṣyāḥ-ca-dharmān-punar-manyante-iha-dharmam-prati-ṛcchanti-ca.
ācāryā nṛpāḥ (/nṛpās) śiṣyās ca dharmān punar manyanta iha dharmam prati ṛcchanti ca.
스승들과 왕들과 학생들이 다르마들을 다시 생각하고 이곳에서 다르마에 대해서 질문한다.

D03.01(24) apaṇḍitaḥ-nṛpaṃ-prati-namati. brāhmaṇam-prati-tu-namati-nṛpaṃ-prati-eva-

paṇḍitaḥ-hasati.

apaṇḍito nṛpaṃ prati namati. brāhmaṇaṃ prati tu namati nṛpaṃ praty eva paṇḍito hasati.

못 배운 사람은 왕을 향해서 인사를 한다. 하지만 사제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왕을 향해서 웃는 것이 배운 사람이다.

D03.02 다음 이야기를 한국어로 옮기시오.

D03.02(01) athāsti vaṇijakaḥ. vaṇijako devālayam icchati. vaṇijako gṛhakāraṃ prati gacchati ca namati ca. he gṛhakāraḥ bhavaśīti vadati vaṇijako 'tra. gṛhakāraḥ devālayam karotītīhāgacchāmi. devālayam icchāmīti gṛhakāraṃ vadati vaṇijakaḥ. tatkālam vaṇijaka upahāraṃ diśati. janā devālayam icchantīti manyate gṛhakāraḥ.

그런데 상인이 있다. 그리고 상인은 신전을 원한다. 상인이 목수를 향해 가서 목수에게 인사한다. “어이! 당신은 목수이다.”라고 상인이 거기에서 말한다. “목수는 신전을 만들기 때문에(iti) 내가 이곳으로 왔다(iha-āgacchāmi). 나는 신전을 원한다.”라고 상인이 목수에게 말한다. 그 때에 상인이 공물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신전을 원한다고 목수는 생각한다.

D03.02(02) atha gṛhakāraś ca saṃvatsaram devālayam karoti. dinaṃ gṛhakāraḥ punaḥ punar gṛhaṃ gacchati pibati ca. tatkālam tu vānarā devālayam āgacchanti krīḍanti ca. tatra stambho 'sti.

그리고 나서 목수는 일 년 동안 신전을 짓는다. 하루에 목수는 다시 또 다시 집으로 가서 마신다. 그때 원숭이들이 신전으로 오고 논다. 거기에 기둥이 있다.

D03.03 다음의 한국어 문장을 짱쓰끄리땀으로 옮기시오.

D03.03(01) 배우지 못한 자가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자꾸 말한다.

apaṇḍito 'satyaṃ punaḥ punar vadati.

D03.03(02) 사제들은 일년 동안 공물만(eva)을 요구한다.

brāhmaṇāḥ saṃvatsaram upahāraṃ eva pṛcchanti.

D03.03(03) 영웅과 (그리고 함께 하는) 현자인 왕은 사원으로 간다.

vīraś ca paṇḍito nṛpaś ca devālayam gacchataḥ.

D03.03(04) 거기에서 원숭이들은 막대기들을 던지고 뛰어다니고 논다.

tatra vānarā daṇḍān kṣipanti (ca) skandanti (ca) krīḍanti ca.

D03.03(05) 두 사제는 일 년 동안 말하고(√bhāṣ) 쓴다.

brāhmaṇau saṃvatsaraṃ bhāṣete likhataś ca.

D03.03(06) 하인들은 왕에게 인사한다. 하지만 왕은 하인들에게 인사하지 않는다.

sevakā nṛpaṃ prati namanti. nṛpas tu sevakān prati na namati.

D03.03(07) 이 세상에서(iha) 스승은 말하고 학생들은 적는다는(iti) 다르마를 현자가 지적한다(√diś).

ācāryo bhāṣata iha śiṣyāś ca likhantīti dharmam diśati paṇḍitaḥ.

D03.03(08) 사람들이 해와 달을 가리킨다.

janāḥ sūryaṃ candraṃ ca diśanti.

D03.03(09) 우리 둘은 집을 원한다고 두 상인은 신에게 말한다.

gṛham icchāva iti vaṇijakau devaṃ vadataḥ.

D03.03(10) 영웅 날라(nala)는 현명한 사제에게 다르마에 대하여 묻는다.

vīro nalaḥ paṇḍitaṃ brāhmaṇaṃ dharmam prati pṛcchati